CHINESE TITLES

제목 : 习近平用典

가제 : 시진핑 어록에서 배우는 현대인들을 위한 13가지 덕목

저자 : 人民日报评论部 인민일보 평론부

발행일: 2015년 03월 01일

글자수: 37만 2,000자

장르 : 자기계발

<내용 소개>

중국고전의 명문장들에는, 중화문화의 길고 긴 역사를 통해 갈고 닦인 지혜의 정수가 담겨있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경전들의 축약체인 것이다. 시진핑은 중요 연설등에서 자주 경전 중의 어구나 고사를 인용했다. 이에 인민일보에서 특별히 <시진핑용전>을 집필해 시진핑의 주요 어록을 담았다. 이 책은 각각 정치, 수신, 청렴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 시진핑의 발언에서 인용된 고서를 깊게 파고 들어 현실적 의미와 배경을 해설해 현대인들이 귀 기울여야 할 덕목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다.

<본문 발췌>

■ 고전 원서 표현:

黄酋书，昨鉴川公亦曾抄寄本兵。此酋贪纵寡谋，终当归吾羁绁。观其书词，已非昔时之倔强，可用其几而制之。……但愿审度时宜，虑定而动，天下无不可为之事。况今时则易然耳。

——（명나라）장거정의 저서《答宣大巡抚吴环洲策黄酋》

■ 고전 번역:

(부분번역) 이는 명나라 시대의 '장거정' 이란 사람이 쓴 편지 내용이다. '宣大巡抚' 란, 명나라 초기에 생긴 관직명으로 중국 북부를 관리한다. 편지상의 '黄酋'는 몽고의 한 부족 알탄칸의 아들 황타이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사전준비 없이 성공하는 일은 없다. 장거정은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매사 분명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늘 심중에 마지막 단계를 그리고 있다, 시작이 순조로워야 마지막까지 순조로울 수 있다'라고 언급했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장거정으로부터 명나라 신종황제대에 새로운 정치강령이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목차>

머리말: 문화에서 힘을 끌어내다

1. 국민 존중
2. 정치
3. 덕
4. 수양
5. 성실
6. 권학
7. 인재등용
8. 천하
9. 청렴
10. 신념
11. 창조
12. 법치
13. 논증

제목 : 正確洗菜

가제 : **채소 씻기: 농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채소를 먹는 법**

저자 : 顏瑞泓 옌루이홍

발행일: 2014년 12월 20일 (대만)

분량 : 221

장르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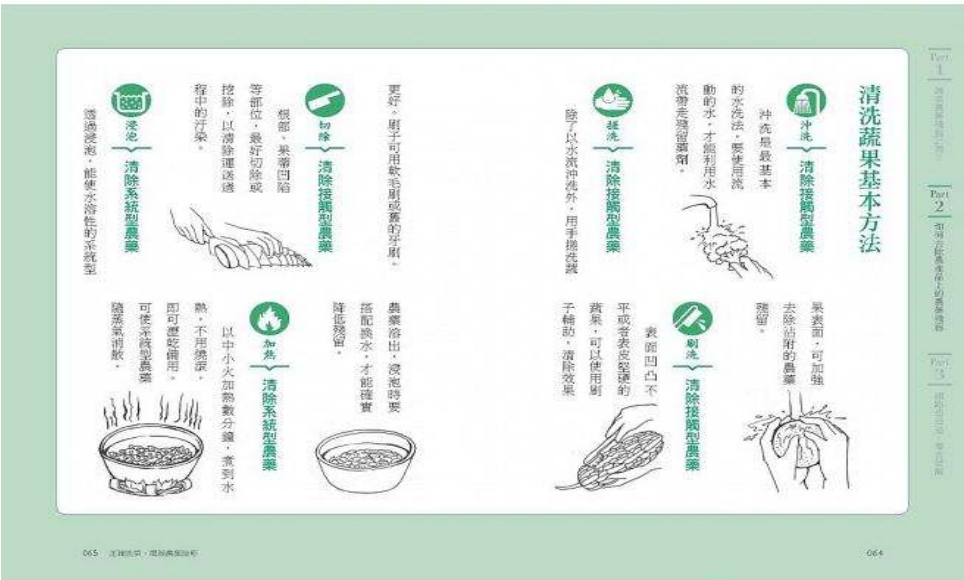
<내용 소개>

가족의 안전한 식사를 위해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실용적인 생활상식도서!

권위 있는 농약 박사가 농약이 남지 않는 올바른 채소 세척법을 직접 전수한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농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사람들은 농약의 성분과 이용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농약'이란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을 먼저 보인다. 그래서 이 책은 농약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농약의 종류와 기능, 주요 농약잔류 부위들을 상황에 맞게 제일 효과적인 세척 방법을 수록했다. 소금과 소다를 활용한 세척은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귤은 몇 일 놓아두고 먹어야 안전하며 옥수수는 삶는 것만으로도 농약이 날아간다. 그리고 바나나는 원래 씻은 후 먹어야 한다 등 100여종에 이르는 잡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을 31개 항목으로 각각 분류해 세척포인트와 요령을 전한다. 1분만에 농약잔류부위를, 3분이면 세척법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에 맞춘 풍부한 그림과 글로 실어냈다. '인터넷상식타파!'라는 인터넷상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코너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저자소개>

옌루이훙

저자는 20여년간 잔류농약 연구를 진행해왔다. 식품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인터넷상에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 넘쳐나자, 작가는 대중들에게 농약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전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 주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국립 타이완 대학교 농업화학과 교수이다. 농약 및 환경독극물 연구실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타이완 생물자원 및 농업학원 차세대 학자 학술연구상' 수상경력이 있으며 최근 수상경력은 2014에 수여받은 '2014년 타이완 농업화학회 제 15회 논술경연 영예학술상'이다.

<목차>

책 사용설명서

1장 잔류농약 25문

1. 인식편

-농약이란? 채소와 과일에 사용되는 농약은 모두 안전한가?

-'농약' 독극물로 인지되는 농약을 농작물에 사용하는 이유는?

-잔류농약, 피할 수는 없는 것인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시기에 수확한 농작물, 먹어도 되는 것인가?

2. 선택편

-농약이 인체에 가하는 영향은?

-시장에서 고르는 농작물, 농약을 피해갈수 있을까?

-벌레의 흔적이 있는 농작물이 과연 농약을 쓰지 않은 작물인가?

3. 세척편

-소금으로 잔류농약을 제거한다는 사람들, 사실인가?

-채소세척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25문 중에서…

2장 농작물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방법

1. 잡곡류
2. 잎채소류
3. 열매류
4. 콩류
5. 근경류
6. 버섯류
7. 과일류
8. 기타

3장 인터넷 유언비어 타파

가제 : 오래된 아파트
저자 : 정용전 (대만)
발행일: 2012.2
분량 : 240쪽
장르 : 아동문학

<내용소개>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것도 아니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아났다고 실패한 인생도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주인공 텅량이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텅량의 아빠가 실직을 한후 매일 술을 퍼마시며 현실을 도피하는 생활을 지속합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고 아빠와 텅량은 실의에 빠져 무기력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고모의 도움을 받아 아빠가 어릴 적 살던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간 집은 기대와 다르게 너무 오래되어 거뭇거뭇 곰팡이가 끼어있고 친구들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놀릴 만큼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본인의 집이 생겨 한결 편안해진 아빠의 표정을 보면서 텅량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아빠를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텅량의 삶도 점점 변화하게 되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이하라고 놀림받아 자신감 없는 주인공 텅량과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자신감을 잃었던 아버지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본인의 가치와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텅량을 통해 용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살게된 텅량에게 닥친 괴이한 문제들 역시 이 책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저자 소개>

정용전, 힐링, 판타지 등 아이들이 읽기에 적합한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학상, 타이베이 문학상, 구가소년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도서, 신문, 잡지, 교과서 편집을 하였었고 현재는 글을 쓰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